

# 야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압박

<미래·평화·정의>

## 민주·한국당에 "정치개혁 동참하라" 촉구

야 3당이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를 갖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겨냥해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야 3당은 "촛불혁명이 명령한 제1의 정치개혁과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장벽에 부딪혔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기득권이 개혁의 열망을 막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토록 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회피하고 스스로의 신념을 부인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회피하니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반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3당은 "지금의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며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제1의 정치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좌초시킬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민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정상적인 민

주주의, 의회가 기능을 발휘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길 원한다"며 "내 표가 사표 되지 않는, 내 표가 국회를 통해 국정에 반영되는 정치제도 안착을 바란다. 의회제도 정상화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답"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10배 더 중요한 것이 먹고 살기 힘들고 정치적 힘도 없는 우리 사회적 약자에게 정치적인 힘을 되찾아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대표에게 먼저 약속을 지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원을 이루라고 앞장서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를 한 단계 더 선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집권정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는 행위를 할 건가. 집권정당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공백하게 할 것인가. 오늘이라도 하루빨리 민주당은 기존 당론에 입각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진성 기자



예산안조정소위 재가동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안상수 위원장 주재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이재명 의혹' 진상규명특위 설치

바른미래당, 위원장에 권은희·부위원장에 장영하 임명  
하태경 의원 "정국 안정을 흐트르는 가장 큰 사안 돼 있어"

바른미래당은 28일 이른바 '해경궁 김씨(@08\_hkiam)' 트위터 사건 등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관한 의혹을 다루기 위해 당에 '이재명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으로 권은희 최고위원(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부위원장에 장영하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 건은 굉장히 심각하고 정국 안정을 흐트르는 가장 큰 사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이를 조기에 수습하

고자 답력을 모으기로 했다"고 위원회 활동취지를 설명했다.

위원회를 이끌어갈 권은희 최고위원은 "상남에서 여러 가지 투머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이것이 하나둘씩 수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최고위원은 "우리가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고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장영하 변호사는 최근 이재명 지사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발하기도 했다. /뉴스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군산 유치 환영'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관광기업도시 재도약 계기"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전북 군산)은 2020년에 열리는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과 제1회 전국장애인해양스포츠제전을 군산으로 유치했다고 밝혔다.

2020년에 열리는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서해안 고군산군도에 위치한 전북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난 9월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도시에 경북 포항시와 전북 군산시가 유치 신청을 했으며,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현장 실사와 심사를 진행해 11월 27일 최종 확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유치를 신청한 군산시는 선유도해수욕장과 은파유원지



등 해양 레저스포츠 경기를 진행하기에 최적의 해양자원을 갖고 있는데다 제27회 리갯타대회,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 등 풍부한 대회 개최 경험을 지니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군산에서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열리게 돼 매우 기쁘다"며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는 물론 2019년 개항 120주년을 맞이하는 군산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국제관광기업도시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예타 통과 주역

평화당 김종희 의원  
"내년부터 본격 착수"



1,290m), 부안교(3→5기), 여객부두50m, 부지조성(30→75천㎡)건설을 위해 4년간 국비 1,0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새만금 내측어선의 외측이동과 항내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희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전북의 숙원 사업이었던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착수된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새만금 가력선착장'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데 이어 금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이끌었다.

앞으로 '새만금 가력선착장'은 방파제(764→1,674m), 물양장(620→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로 2019년부터 설계등 후속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40억 원이 반영돼 있다.

김종희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며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정부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유치원 3법' 처리 불발

교육위 법안소위, 내달 3일 재논의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원회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유치원 3법과 한국당이 발의하는 사립유치원 관련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법안 발의가 늦어짐에 따라 관련 논의를 내달 3일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 한 달이 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원내대표 간 합의도 있었다"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12월3일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12월3일로 시한을 정한 다음 유치원 관련 법안을 논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를 위해 법안대사가 약 50분 늦게 회의장에 도착했다. 이 자리에서 확산도 한국당 의원은 "오늘 법안 발의는 어

렵지만, 이 법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2월3일에는 검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한국당이 당연히 법안을 가지고 와서 병합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국민에게 면이 안 서고 납득이 안 간다"며 "더는 (법안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뉴스

여야,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6~9세로 확대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9세로 확대하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 지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5361억원 증액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앞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간사단 합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복지위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 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 4102억원을 증액했다. /뉴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